

참여예산 노인여성분과 월례회의 개최결과

★주무관	참여구정팀장	민관협치담당관

참여예산위원회 노인여성분과 2017년 2차 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7. 4. 10.(월) 10:30
- 장 소 : 주민참여회의실(본관 7층)
- 참석인원 : 11명 참석
- 회의안건
 - 실행사업 모니터링 논의
 - 은평구 참여예산제 개선방안(진단) 논의

□ 회의결과

- 노인여성분과 실행사업 모니터링 사업 검토 및 운영 논의
 1. 모니터링 조편성(총괄 : 노인여성분과 위원장)
 - 1조 위원 : 꽈수현, 위현, 양은희
 - 2조 위원 : 이은종, 임정민
 - 3조 위원 : 이경원, 조영행, 권규일, 손진호, 이선미
 2. “장례 인식개선 임종노트” 사업설명(어르신복지과 담당주무관)
 - 모집대상에 대한 특성이 어려운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 - 사업의 특성상 일회적 운영으로는 인식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프로그램 운영시 동일 대상으로 3회 이상 운영될 필요가 있음

- 입관 체험, 수의 입어 보기, 유서 작성 등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 물품의 무상대여 제공 단체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함

3. “희희낙락 은평에서 놀자” 사업설명(응암노인복지관 담당자)

- 노는엄마 협동조합과 함께 운영되며 어르신 놀이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보드 게임 교육 실시중

4. “구립 노인복지관 운영” 관련 자료 설명(갈현노인복지관장)

- 어르신복지과 제공으로 타구와 비교하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구는 서울시 복지관 기준의 인건비가 책정되지만 은평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 지속됨
- 인건비는 고정이나 해마다 사업수가 늘어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극심하고, 이에 따른 사업의 질도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
-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기에는 기준이 산발적임. 인건비를 기준하여 비교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

○ 은평구 참여예산제 개선방안(진단) 설문조사 및 위원활동 평가

- 주민제안사업 심의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
- 민간보조금 집행 절차가 까다롭고 예산 총계주의로 인하여 세입·세출 상계처리가 안되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
- 상·하반기 1회씩 각 분과의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의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것을 건의함
- 동 참여예산위원회가 낮시간에 운영되어서 상대적으로 직장인의 참여가 저조하고, 참석자 역시 직능단체 구성원 위주로 구성되어

있어 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요구됨

- 이에 해결책으로 새로운 위원을 모집할 때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이 조직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
- 구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할 때 상견례 차원의 절차가 없어서 동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경우가 빈번함
- 동 지역회의는 통장회의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회의 진행이 매우 형식적이고, 참여예산위원회의 멤버십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임
- 통장단, 마을계획단, 직능단체, 찾동사업단 등 중복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많아 참여예산위원회로서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
- 동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동장, 담당 팀장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과의 민관협력이 필수적임

○ 기타

- 신규위원 2명 총원 요청
-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비치 요청
- 차기 회의 일정 : 2017년 5월 16일 10:30

□ 회의장면



끝.